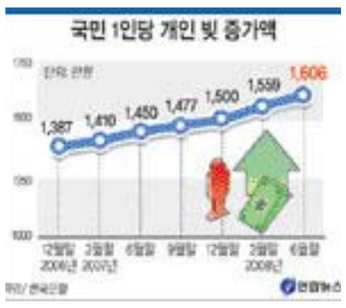
국민 1인당 빚 1,600만원

개인 부채 총 780조 달해 … 부채 상환능력 4년 6개월래 최저

韓銀, 2분기 자금순환동향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개인 빚이 1천600만원을 넘어섰다.

빚이 금융자산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2분기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는 780조7천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3.1%인 23조1천억원이 늘었다. 개인 부문의 전기대비 부채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7%에서 2분기 2.9%, 3분기 2.3%, 4분기 3.1% 등으로 올라갔으나 올해 1분기 2.4%로 둔화한 뒤 2분기에 3%대로 올라 섰다.

개인부문 부채를 올해 7월 기준 통계청 추계인구(4천860만7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빚은 1천6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1천559만 원보다 47만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개인 부문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6월 말 현재 1천736조3천억원으로 1분기의 1.6%인 26조7천억원 늘어났다. 1분기 증가액 2조4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이지만,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가파르게 늘면서 개인의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1분기 2.26배에서 2.22배로 악화됐다.

이 비율은 2003년 4분기(2.2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인부채 총액에는 가계와 함께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비영리 단체 등이 포함된다.

2분기 때 개인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예금비중은 상승한 반면 주식 및 수익증권 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6월말 현재 개인부문의 예금잔액은 752조2천억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43.3%를 차지해 2분기 42.9%보다 비중이 늘었다.

수익증권 및 주식잔액은 각각 162조5천억원, 329조7천억원으로 각각 9.4%, 19.0%를 차지해 전분기의 9.6%와 19.3%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는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평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부문의 자금부족 규모는 1분기 41조9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축소됐다.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액은 8천530조8천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9% 증가했으며 금융자산 잔액을 명목 국민총소득(GNI)로 나눈 금융연관 비율은 전분기말(9.02)보다 상승한 9.09배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초고화질 디지털 카메라 캐논코리아 컨슈머이이미징이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08 하반기 캐논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 공개행사에서 모델들이 EOS 5D Mark II 등 신제품 7종을 선보이고 있다. EOS 5D Mark II는 풀 HD 동영상 기능을 탑재했으며, 2천110만 유효화소의 35mm CMOS 센서를 채택해 초고화질 촬영을 가능토록 했다. /연합뉴스

미분양 아파트 투자 펀드 세제 혜택·소득공제 추진

정부 부동산 PF發 금융불안 차단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 금융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고 건설업체 부도나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일정 한도를 소득공제해 주거나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경우 그 차액을 건설업체가 일부 보전하도록 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건설업체가 부도났을 때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펀드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을 덜어주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면 건설업체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PF 대출을 해 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역사 화폐 다 모였네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를 찾은 시민들이 1층 로비에 마련된 세계의 역사 화폐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화폐로 보는 세계사 명장면' 특별기획 전시전은 '탐험과 모험의 시대' 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12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원시스템㈜	경리/사무업무 경력직 여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19	062-384-1161
㈜인터블루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및 현장감리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9/19	062-524-2555
원진기획	[정규직/주5일근무]광고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0	010-6310-9980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광주점/전대점]유학 상담 및 마케팅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233-8171
미래에셋생명본사	[광주콜센터]미래애셋생면 본사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800~3000	09/24	02-2052-1260
㈜동방종합전기	정규직 소방관련 기술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9/24	062-382-2114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금융상품 전문영업인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4	062-382-2815
㈜현대코리안	경리사원 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5	062-956-6852
씨에이치솔루션㈜	하나로텔레콤 유선상품 홍보사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9/26	02-456-9799
㈜에프에이뱅크	자동제어시스템 설계 및 제작 설치가능자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6	062-962-8855
드림종합건설㈜	현장소장/공무/업무 인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9/26	062-971-7054
핫붐	물류재고관리 및 입출고관리, 주문서작성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30	062-375-5998
㈜남흥건설	하반기 각 부분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600-264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미국發 금융 위기 무역수지 '먹구름'

원달러 환율 급상승 수출증대 효과 시들

유가 하락 불구 9월 무역수지 적자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미국 경기침체로 대(對)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유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된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3사의 부분파업으로 7억달러의 수출 감소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에도 현대차의 부분파업이 이어져 10일까지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 불가피=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수출은 9월 둘째 주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현대차의 부분파업이 이달에도 이어진 가운데 미국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한국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지난달 0.02%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IT 수출의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정유사들이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이 추가로 떨어지기 전에 수출을 늘리고 있고 조선과 플랜트의 수주 호조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IT 등 선진국 경기에 민감한 수출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유가하락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워"=미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해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는 15일 배럴당 92달러로 약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80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경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0달러 내리면 무역수지는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5억달러 정도 개선되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하락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지역으로 부상한 자원부국으로의 수출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보유 주식·채권형 펀드 정부 "세제지원 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증시 불안과 관련, "투자심리 안정 및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장기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득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의 유동성 악화와 관련, "향후 국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일일 자금동향을 밀착 파악하는 한편, 필요시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돼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인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공기업을 통한 외자유치, 해외 IR(투자설명회) 추진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발 금융쇼크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미국 금융회사의 추가 부실 우려와 글로벌 실물경제 둔화 가속화 등으로 변동성 높은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AIG에 800억달러 수준의 긴급 구제금융이 지원되고 골드만삭스의 3분기 실적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월가의 분위기"라며 "이는 시장 안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또는 경기민감 산업인 건설업 등에 대한 과도한 대출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을 통해 추가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제유가 하락·환율 안정세 하반기 물가 4% 중반 유지"

재정부 차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7월 초에 4% 중반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는데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4.3%였는데 하반기는 4% 후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김 차관은 국제유가가 최근 두달 동안 40%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일가격에 대한 불안이 가시고 있고 환율은 단기간 많이 올랐지만 서서히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김 차관은 "여러 경제정책들이 가시화되면 4% 미만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4% 후반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호조, 유가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 여건도 점차 개선돼 당초 기대했던 100억달러 이내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김 차관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장·단기 채권금리差 커지면 생산활동 5개월 이후 극대화"

韓銀 연구원 보고서 장·단기 채권금리의 격차가 향후 10개월간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명수 과장은 17일 '장단기 금리격차의 생산갭 예측력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장단기 금리차(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콜금리)가 커지면 생산갭은 5개월 이후 극대화되고 10개월까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갭이란 실질 생산에서 장기 평균생산을 빼서 구하는 값으로 생산갭이 확대되면 생산활동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변동에 선행하는 지표가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인하하면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단기금리와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논리다.

이 과장은 "분석대상을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까지 늘리면 생산갭 확대기간이 18개월로 길어지고 생산갭도 6개월쯤 극대화된다"며 "외환위기 이후로 경기변동 주기가 짧아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하는 기간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단기 금리차가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감, 기간프리미엄(만기 차이에 따른 금리차) 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만기로 국채를 발행하는 등 채권시장의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또 급락

두바이유 80달러대 … WTI도 4.56달러 ↓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가 수요감소 전망에 따라 폭락하면서 80달러대로 내려섰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6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5.79달러(6.3%) 폭락한 86.56달러를 기록해 2월 6일(84.20달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배럴당 4.56달러 급락한 91.15달러를 기록했고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5.02달러 떨어진 89.22달러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2종 일반주거지 18층 건물 허용

빠르면 연말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도심 개발사업지의 주거용 토지는 18㎡만 되도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는 규정이 마련돼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개선과 창업절차 간소화,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했던 내용중 일부가 변경됐다. 당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이하'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평균 18층이하'로 더 완화됐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도 조례개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연말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